

이제는 오르간을 모프모프 교수님께 배웠어요. 교회음악-A를 공부 하면서 많은 학업의 성과를 이룬 것 같아요. 및 공평에서도 입상을 했고, 한 학교에 단 한 명에게만 주는 문화부장관 장학금을 수년간(교회음악-A 2년, 최고연구자과정 2년) 받았거든요.

이준덕 : 선생님은 리스트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도이원 : 저의 스승이자 리스트宗宗의 입상자였던 모프모프 교수님이 리스트 작품을 강력하게 추천하셨어요. 전 공평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는데, 교수님의 적극적인 추천과 제가 어려서 피아노를 연주 할 때부터 좋아했던 리스트 공평이 다가오게끔 도와주게 되었지요. 리스트 공평은 5분마다 한 번씩 일러는데, 저는 1999년에 참가하였고 입상을 하였지요. 요즘엔 편곡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Les Preludes'라는 오케스트라곡을 오르간으로 편곡했고, 베를라이트 출판사에서 악보로도 출판을 했어요. 얼마 전엔 피아노곡인 단테 소나타를 오르간곡으로 편곡하였고, 초연도 하였지요. 이렇게 다른 악기곡을 오르간곡으로 편곡하는 것은 저의 또 하나의 기쁨이고 최근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준덕 : 리스트 외에도 특별히 좋아하는 작곡가가 있나요?

도이원 : 바흐가 있지요, 즐겨 연주하고 있고, 바로 알아는 살피 대미가 없을 정도지요. 모짜르트도 아주 좋아하는 작곡가예요. 모짜르트곡만이 가진 그 특별함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 외에 쿠프랑이나 마상 같은 옛 프랑스 곡들도 자주 연주하고, 프랑크곡과 모이브케곡도 아주 좋아해요. 예사말도 배울 수 없지요.

이준덕 : 모이브케 CD를 제작하시고자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어요.

도이원 : 최상으로 불리는 모이브케와 리스트의 단테 소나타를 담은 CD를 제작하고자 계획 중에 있어요. 두 곡을 함께 담을 수 있는 음질의 오르간을 찾고 있어요. 얼마 전엔 노르웨이에 이어 맞는 오르간이 있다고 해서 다녀오기도 했는데, 심지가 없네요. 적합한 오르간이 찾아지는 대로 작업을 할 계획이에요.